

I. 머리말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은 정치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깊으며 자연스럽게 장구한 세월을 걸쳐 연구되어 왔기에 가장 기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치학계의 초기에, 더 좁혀 말해 1950년대 중·후반 이전에, 정치학자들이 이 주제의 연구에 집중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이 경향은 미국정치학계에서 행태주의적 이론과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정립된 ‘과학적’ 정치학이 1950년대 후반에 한국정치학계에 수용되고 이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바뀌었다. 정치체계론을 비롯해, 정치문화론, 정치사회화론, 정치소통론, 정치리더십론, 그리고 근대화론의 시각에서 성립된 정치발전론 등이 주류로 자리를 잡았으며, 비교정치론과 그리고 그것의 한 지류인 개발도상국정치론 등이 각광을 받았다. 거기에 더해, 정부와 관료제의 효율적 조직과 관리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춘 행정학 그리고 2차대전의 종전 이후 특히 동서냉전의 영향 아래 빠르게 발전한 국제정치학 역시 학문적 관심을 크게 자극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퇴조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정치학계의 연구동향에 변화가 일어났다. 2차대전이 끝나면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이른바 제3세계에 대해 소련이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을 앞세워 활발하게 접근해나가자 미국은 대항이론으로 근대화론을 전파했고 그 결과 근대화론이 꽤 널리 수용되면서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는데, 그러한 흐름에 반전이 나타난 것이다. 국가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이념적·계급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 없이는 정치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확산됐고, 그리하여 ‘마르크시즘의 부활’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둔 ‘국가론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높여주었다. 특히 이 시기에 세계 여러 곳에서 민주화운동이 진전되고 권위주의체제 또는 독재체제를 무너뜨리자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1980년대 이후 한국정치학계가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 분야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민주주의 연구에서 어떤 학문적 성과를

보여주었고 그것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한국정치학회 회원들의 저·역서(논문 제외)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한국정치사상 분야는 다른 계제에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II. 정치철학 전반 그리고 정치철학의 기본 주제들(자유·평등·정의·평화 등)

우선 정치철학에 관한 일반이론 그리고 정치철학의 기본적 주제들인 자유·평등·정의·평화 등을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대적 관점에서 접근한 저·역서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3rd Edition, 1987)/김영수(金永壽) 외 공역/김홍우(金弘宇) 감수, 『서양정치철학사 1: 고대·중세』(인간사랑, 1992); 이동수(李東秀) 외 공역/김홍우 감수, 『서양정치철학사 2』(인간사랑, 2007); 김남국(金南局) 외 공역/김홍우 감수, 『서양정치철학사 3』(인간사랑, 2007).

레오 스트라우스(1899~1973) 교수와 조셉 크로프시(1919~2012) 교수는 모두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철학을 강의한 당대의 지도적 철학자들로서, 그들이 공편한 위의 책이 출판되기 이전에 구미 정치학계에서는 정치사상사의 대표적 저서로 조지 세바인(George Sabine, 1880~1961) 교수의 『[서양] 정치이론사(*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New York: Henry Holt, 1937)]』가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책은 초판 이후 쇠를 거듭하며 한국어를 포함해 7개국어로 번역됐고 (한국에서는 민병태[閔丙台] 교수에 의해 『정치사상사』로 번역됐다.), 1973년에 토머스 솔슨(Thomas L. Thorson)에 의해 제4수정판이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수정됐다. 스트라우스와 크로프시 공저의 위의 책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서양정치철학사를 서술한 ‘서양정치철학 통사’에 해당하는데, 세바인의 책을 서서히 대체해나갔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

2. 김홍우, 『현상학과 정치철학』(문학과지성사, 1999).

위의 책을 감수한 저자는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영국의 철학자 흄(David Hume, 1711~1776)과 체코 출신의 독일 철학자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 등이 발전시킨 현상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

고 경희대학교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봉직했으며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주제와 관련해 저자가 발표한 논문들을 체계를 세워 편집한 이 책은 한국의 정치학자가 현상학의 관점에서 정치철학에 대해 설명한 최초이면서 유일한 사례다.

3. 양승태(梁承兌) 역,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아카넷, 2002).

이 책은 레오 스트라우스 교수가 1943~1957년에 출판한 논문과 서평 및 강연 등을 번역해 모은 책이다. 역자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일관되게 서양정치철학 연구에 전념해 많은 저작을 출판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상과 이상 사이에서: 민주화시대의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및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0)을 출판했다.

4. 최상용(崔相龍), 『평화의 정치사상』(나남, 1997).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긴 역사에서 제시된 ‘평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양정치사상을 살폈다. 동경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한 저자는 『중용의 정치사상』(까치글방, 2012)도 출판했는데, 이 책은 고대중국 공자와 맹자의 중용사상과 고대그리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사상을 비교한 뒤 ‘중용민주주의’를 제창했다.

5. Sheldon S. Wolin,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Little, Brown and Co., 1960;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강정인 등 공역, 『정치와 비전: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지속과 혁신』전3권(후마니타스, 2007).

저자(1922~2015)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구미 정치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책은 정치철학을 철학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제1권 셸던 윌린 저/강정인·공진성·이지윤 등 공역, 『정치와 비전: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지속과 혁신』(후마니타스, 2007).

플라톤을 중심으로 고대의 정치사상을 설명한 데 이어 중세의 기독교 정치사상을 설명했으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루터와 칼빈의 정치사상을 설명했다.

제2권 셸던 윌린 저/강정인·이지윤 등 공역, 『정치와 비전2: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지속과 혁신』(후마니타스, 2009).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생시몽, 레닌 등의 정치사상을 설명했다.

제3권 셸던 윌린 저/강정인·김용찬·박동천·이지윤·정동진·홍태영 등 공역, 『정치와 비전3: 서구 정치사상에서의 지속과 혁신』(후마니타스, 2013).

마르크스, 니체, 포퍼, 듀이, 롤스 등의 정치사상을 설명했다.

6. 이종은(李鍾殷), 『정치와 윤리: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책세상, 2010); _____, 『평등, 자유, 권리: 사회정의의 기초를 묻다』(책세상, 2011); _____, 『정의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책세상, 2014); _____,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현대 정의이론과 공동선 탐구』(책세상, 2015).

저자는 켈트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했다. 첫 번째 책 『정치와 윤리』로 2010년도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으며, 그 다음의 책들이 학계에 끼친 영향을 인정받아 2019년도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상을 받았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필요한 사회정의의 문제를 플라톤과 칸트 및 헤겔 그리고 존 롤스 등 서양 정치철학자들의 이론에 기초해 접근했으며, 정의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평등·자유·효율로 보았다. 서평으로 다음이 대표적이다.

이동수, 「서평: 도덕, 윤리 그리고 정당성; 이종은 저, 『정치와 윤리』」, 『정치사상연구』 제17집 제1호(2011년 봄), 187~191쪽.

Ⅲ. 동양(중국 및 일본)

우리가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이라는 말에 접할 때, 그것은 서양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에서도 고대 이래 성장·발전해왔다. 춘추시대의 공자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같은 시대 철인(哲人)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 역시 얼마나 오래 전에 정립됐던가를 새삼 일깨워준다.

중국

1. 소공권(蕭公權), 『중국정치사상사』전2권(상해, 중경, 1945)/최명(崔明) 번역, 『중국정치사상사』(법문사, 1988)/최명·손문호(孫文鎬) 공역, 『중국정치사상사』(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저자(1897~1981)는 미주리대학교에서 조지 세바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석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코넬대학교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논문에 기초해 『정치적 다원주의: 현대 정치이론 연구

(*Political Pluralism: A Study in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New York: Harcourt, Brace, 1927)』를 출판했다. 그는 청화대학 교수로 부임해 중국정치사상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1940년에 완성했고, 1945년에 『중국정치사상사』로 출판했다.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자, 다시 도미해 시애틀의 워싱턴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했다.

「서론」에 이어 4편 2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주나라 말부터 신해혁명에 이르기까지 2500여 년 동안 전개된 중국정치사상의 개요를 약술했다. 저자의 표현으로, “체제는 날로 하고 사상과 학파를 씨로 하여 짜여졌으며 [...] 각 사상의 사상을 서술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태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일리노이대학교(어바나·샴페인 캠퍼스) 대학원에서 비교정치를 전공하는 가운데 중국정치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먼머스칼리지 전임강사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봉직한 최명 교수는 원저의 제3판(상해, 1947) 상·하 가운데 상권을 대본으로 삼아 법문사판을 펴냈다. 그는 왕영조(汪榮祖) 편집, 『소공권집』(대만: 연경출판사업공사, 1982) 제4책의 『중국정치사상사』 상·하 2권도 참조해 이 법문사판을 개역했고, 그의 제자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고 서원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한 손문호 교수는 후자를 대본으로 삼아 하권을 번역한 뒤, 서로 바꿔 읽어보며 철저히 검토하고나서 두 부분을 합쳐 공역판을 펴냈다. 소공권의 원저는 그 일부가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프레데릭 모트(Frederick W. Mote)에 의해 *Kung-chun Hsiao, A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 Vol. 1(From the Beginning to the Sixth Century A.D.)*(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로 영역됐는데, 공역자들은 이 영역본을 활용하면서 모트 교수의 주(註)를 소개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주를 첨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서평으로 다음이 있다.

고영근(高英根), 「서평: 소공권 저/최명·손문호 공역, 『중국정치사상사』」, 『광장』(1989년 11월), 104~111쪽; 김소중(金昭中), 「서평: 중국 정치사상사 연구의 가치와 그 현재적 의미; 소공권 저/최명·손문호 공역, 『중국정치사상사』」, 『동양정치사상사』 제1권 제1호(2002년 3월), 271~276쪽.

2. Youngmin Kim, *A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Cambridge, U.K.: Polity, 2017); 김영민(金英敏), 『중국정치사상사』(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저자는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브린모어 칼리지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중국정치사상사에 관한 저서를 먼저 영어로 출판하고 이어 우리말로 출판했다.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중국정치사상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

1.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충성과 반역: 전형기(轉形期) 일본의 정신사적 위상』 (지쿠마쇼보, 1992, 1998 해설 가와사키 오사무[川崎修])/박충석(朴忠錫) 역, 『충성과 반역』(나남, 1998).

동경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마루야마 마사오(1914~1996) 교수는 전후 일본 정치학계 최고원로로, 일본의 사상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저서들을 출판했다. 역자는 그의 지도를 받아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했다.

2.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정치사상사연구』 (동경대학출판회, 1952, 개정판 1983)/김석근(金錫根) 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1998); ____, 『현대정치사의 사상과 행동』 (미래사, 1956, 상~1957, 하, 증보판 전1권, 1964)/김석근 역, 『현대정치사의 사상과 행동』(한길사, 1997); ____, 『일본의 사상』 (이와나미 신서 청판, 1961, 개정판 2018)/김석근 역, 『일본의 사상』(한길사, 1998).

마루야마 마사오 교수의 핵심적 저서들을 번역했다. 역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정치사상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경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특별연구원으로 봉직하며 마루야마 마사오의 저작들을 깊이 연구했다. 인천대학교·건국대학교·연세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다.

IV. 서양(1): 고대 및 중세

고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의 철학, 그리고 정치철학은 위의 세 철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에 관해서는 다음이 대표적이다.

1. 강정인(姜正仁),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문학과지성사, 1994); 강정인·김성환 공편역, 『플라톤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1).

두 번째 책은 다음의 저술을 편역한 것이다.

i. Richard Mervyn Hare, *Plat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ii. Plato, *The Republic*, trans. by Desmond Lee(New York: Penguin, 2nd ed., 1974).

iii. Sheldon S. Wolin, "Chapter 2: Plato: Political Philosophy versus Politics," _____,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Little, Brown, 1960), pp.28~68.

강정인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주로 정치철학 분야에서 많은 저술을 출판했다.

2. 양승태, 『앎과 잘남: 희랍지성사와 교육과 정치의 변증법』(책세상, 2006); _____, 『소크라테스의 앎과 잘남: 대화, 아이러니, 시민적 삶, 그리고 정치철학의 태동』(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3. 김비환(金飛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과 변증법적 법치주의』(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김비환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4. 박동천(朴東泉), 『플라톤 정치철학의 해체』(모티브북, 2012).

일리노이대학교(어바나·샴페인 캠퍼스)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하고 플라톤의 국가론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는 저자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분석했다.

5. Ernest Barker, *The Politics of Aristotle*(Oxford: Clarendon Press, 1946; 1995)/라종일(羅鍾一) 역, 『정치학』(올재, 2015).

역자는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했으며, 주영대사와 주일대사를 거쳐 우석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정치학의 고전 가운데 고전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번역하고 해설한 옥스퍼드대학교 어니스트 바커(1874~1960) 교수의 책을 번역했다.

고대~중세

전경옥(全慶玉)·서병훈(徐炳勳)·김은실·이동수(李東秀)·박성우(朴性宇)·김동하(金東河)·유홍림(柳弘林)·김경희(金敬熙)·김용민(金容敏)·박의경·공진성(孔眞聖)·김병곤(金秉坤)·윤비·이화용(李和蓉) 등 분담집필, 『서양 고대·중세정치사상사: 아테네민주주의에서 르네상스까지』(책세상, 2011).

고대의 정치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희랍의 정치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핀 데 이어 중세의 정치사상을 폴리비우스(Polybios,

BC.200~118),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106~43),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 단테(Durante degli Alighieri, 1265~1321), 마르실리우스(Marsiglio da Padova, 1275~1342)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V. 서양(2): 르네상스시대

르네상스시대는 근대의 초기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따로 다루기로 한다.

마키아벨리와 공화주의

르네상스시대의 대표적 정치사상가는 『군주론』으로 유명한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였다. 그는 제정(帝政) 이전 로마의 공화정에 유의하면서 자기 나름의 공화주의를 발전시켰다. 옥스퍼드대학교를 거쳐 케임브리지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리바이어던(Leviathan)』을 통해 명성을 확립했다.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이름이다. 이 책에서 그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만인 대 만인의 전쟁(war of all against all: 라틴어로 bellum omnium contra omnes)’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하여 인간은 질서를 확립해줄 통치자에게 각자의 권리를 양도해 국가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1. 강정인 편역, 『마키아벨리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3).
이 책은 다음을 편역해 묶은 것이다.

i. Quentin Skinner, *Machiavelli*(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ii. Sheldon S. Wolin, “Machiavelli: Politics and the Economy of Violence,” in _____, *Politics and Vision*(Boston: Little, Brown, 1960), pp.195~205.

iii. Niccolo Machiavelli *Mandragola*, trans. by Anne and Henry Paolucci(Indianapolis: The Liberal Arts Press, 1957).

만드라골라는 마키아벨리의 희곡이다.

2. Niccolo Machiavelli, *Il Principe*(영역 *The Prince*)(1532)/강정인 편역, 『군주론』(까치, 1994).

3. 김경희, 『마키아벨리: 르네상스 피렌체가 낳은 이단아』(북21아르테, 2019).

저자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하고 마키아벨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4. Maurizio Viroli, *Repubblicanesimo*(Roma: Gius, Laterza and Figli, 1999); Maurizio Viroli and Antony Shugaar, *Republicanism*(New York: Hill and Wang, 2002)/김경희·김동규 공역, 『공화주의』(인간사랑, 2006); 김경희, 『공화주의』(책세상, 2009); 21세기공화주의클럽 편, 『21세기 공화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인간사랑, 2019); 한국정치평론학회 편, 『공화주의의 이론과 실제』(인간사랑, 2019).

위의 책들은 공화주의의 기원을 고대에서 찾으면서도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VI. 서양(3): 근대

근대(1): 개관

강정인·김병곤·김용민·박의경·황태연(黃台淵)·이화용(李和蓉)·박동천·김용찬·장문강(張文崗)·문지영·이종은 등 분담집필, 『서양근대정치사상사: 마키아벨리에서 니체까지』(책세상, 2007).

마키아벨리, 모어(Thomas More, 1478~1535), 루터(Martin Luther, 1483~1536), 칼뱅(Jean Calvin, 1509~1564: 영어로는 존 칼빈[John Calvin]), 홉스,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 로크,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 1689~1755), 흄, 루소, 칸트, 버크,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기조(François Pierre Guillaume Guizot, 1787~1874), 토크빌, 밀, 마르크스, 니체 등 18명의 정치철학자들 그리고 미국 헌법을 기초한 페더럴리스트(연방주의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근대(2): 사회계약론

홉스

근대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 정치이론은, 이론 사이에 차이는 있으나, 인민 사이의 사회계약에 따라 국가가 성립됐다는 사회계약론이었다. 이 이론의 비조로 학계에서는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토머스 홉스

(1588~1679)를 꼽는다.

1. 강정인 편역, 『홉즈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3).

이 책은 다음을 편역해 묶은 것이다.

i. Richard Tuck, *Hobbes: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ii. Sheldon S. Wolin, "Chapter 8. Hobbes: Political Society as a System of Rules," in _____, *Politics and Vision*(Boston: Little, Brown, 1960).

iii. Lawrence Berns, "Thomas Hobbes," in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396~420.

2. Thomas Hobbe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William Moleworth, ed. *The English Works of Thomas Hobbes*(London: John Bohn, 1839~1845), Vol.3/진석용(秦錫用) 옮김,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전2권(나남, 2008).

국내에서 『리바이어던』을 원전으로부터 완역한 최초이면서 유일한 사례이다.

3. Aloysius P. Martinich, *Hobbes: A Biograph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진석용 옮김, 『홉즈: 리바이어던의 탄생』(교양인, 2020).

역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하고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로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였던 존 로크(1632~1704)는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이론 정립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

1. Ernest Barker, *Social Contract: Essays by Locke, Hume, and Rousseau*(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0)/강정인·문지영(文智暎) 공편역, 『로크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5).

2.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In the Former, 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London: Amen Corner, 1689/

강정인·문지영 공역,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까치, 1996); 공진성(孔眞聖), 『존 로크 통치론: 자기한계를 아는 권력』(쌤앤파커스, 2018).

제목에 나오는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 1588~1653)는 왕의 권력은 신이 왕에게 준 것이라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정립했다. 로크는 위의 저서에서 필머의 이 이론을 논파했다. 공진성은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3. John Locke,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1689)/공진성 역, 『관용에 관한 편지』(책세상, 2008).

로크는 이 작은 책을 통해 정치와 종교의 구분을 제의했으며, 종교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루소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1712~1778)는 『인간불평등기원론(*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Discourse on the Origin and Basis of Inequality Among Men [영역])』을 비롯한 여러 저술로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그의 이론은 프랑스인들에게 큰 자극을 주어 1789년에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

1. 김용구(金容九), 『전쟁과 평화』(을유문화사, 1973); ____, 『장 자크 루소와 국제정치: 영구평화를 위한 외로운 산책자의 꿈』(원, 2004).

이 책은 저자가 국제정치에 관련된 루소의 글들을 번역해 출판한 『전쟁과 평화』(을유문화사, 1973)를 발전시킨 것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에서 소련국제법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했다. 이후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원장으로 봉직했고,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2. 김용민, 『루소의 정치철학』(인간사랑, 2004).

저자는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하고 루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일관되게 루소를 연구해 여러 저작을 출판했다. 위의 책은 루소의 정치철학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전반을 다룬 국내 최초이면서 유일한 사례다.

3. 박호성(朴浩成) 편역, 『루소 사상의 이해』(인간사랑, 2009).

4. 김용민, 임금희, 오수용, 최일성, 박의경, 조희원, 이상익, 공진성, 신충

식, 박혁, 『루소, 정치를 논하다』(이학사, 2017).

5. 오수웅(吳守雄), 『루소의 도덕철학: 인성교육을 위하여』(박영스토리, 2018).

근대(3): 보수주의(버크)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정치가 에드먼드 버크(1729~1797)는 『프랑스에서의 혁명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1790)』에서 프랑스혁명을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해 보수주의의 원조로 꼽히게 됐다.

Robert Nisbet, *Conservatism: Dream and Reality*(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강정인·김상우 공역,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문학과지성사, 1997).

근대(4): 자유와 자유주의(밀, 토크빌)

개관

김병곤,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원: 근대영국과 정치사상』(고이북, 2008).

김병곤은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밀

‘공리주의(功利主義)’를 정립한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19세기를 대표한 지성’이라는 높은 찬사를 받는 사상가다.

1. 서병훈, 『자유와 본질과 유토피아: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사회비평사, 1995); _____, 『자유와 미학: 플라톤과 존 스튜어트 밀』(나남, 2000); John Stuart Mill, *On Liberty*(1859)/서병훈 옮김, 『자유론』(책세상, 2005; 2018개정판); John Stuart Mill,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1861)/서병훈 옮김, 『대의정부론』(아카넷, 2012);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1863)/서병훈 옮김,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책세상, 2007; 2018개정판); John Stuart Mill, *The Subjection of Women*(1869)/서병훈 옮김, 『여성의 종속』(책세상, 2006; 2018개정판); John Stuart Mill, *Three Essays on Religion*(1879)/서병훈 옮김, 『종교에 대하여』(책세상, 2018).

2. 서병훈 편집, 『존 스튜어트 밀 선집』(책세상, 2020).

국내 최초로 출판된 밀의 핵심적 저작들 모음이다. 이미 출판된 『자유론』, 『공리주의』, 『종교론』, 『여성의 종속』, 『대의정부론』 밖에 『사회주의론』을 함께 엮었다.

서병훈은 라이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밀 연구에 전념했다.

토크빌(1805~1859)

프랑스의 법률가이면서 정치사상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을 여행한 뒤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1권 1835, 2권 1840; 영역 *Democracy in America*)를 출판했다. 그는 ‘평등’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1. 임효선(林孝善)·박지동(朴智東) 공역, 『미국의 민주주의』전2권(한길사, 1997).

2. 홍태영(洪泰永), 『몽테스키외와 토크빌: 개인이 아닌 시민으로 살기』(김영사, 2006).

3. 서병훈, 『위대한 정치: 밀과 토크빌,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책세상, 2017); _____,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아카넷, 2020).

VII. 서양(4): 근·현대

마르크스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비조로 여겨지는 독일의 철학자·경제사회학자·정치학자 칼 마르크스(1818~1883)는 『자본론』을 비롯해 수많은 저술을 출판했다.

1. Isaiah Berlin, *Karl Marx: His Life and Environment*(London: Thornton Butterworth, 19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신복룡(申福龍),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 그의 시대』(평민사, 1982).

저자(1909~1997)는 흔히 ‘이사야 벌린’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아이제이아 벌린’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제정러시아에 속해 있던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태어나 제정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했다가 러시아혁명 직후 영국으로 이주했으며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교 교수가 됐다. 훗날 옥스퍼드대학교 안에 울프슨칼리지(Wolfson College)가 신설되자 총장으로 선출됐다. 마르크스를 비롯해 유럽의 여러 사상가에 대해 썼다. 역자

는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건국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 C. Wright Mills, *The Marxists*(New York: Dell Publishing, 1962)/김홍명(金弘明), 『마르크스주의자들』(한길사, 1982).

저자(1916~1962)는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콜롬비아대학교 교수로 봉직했다. 역자는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조선대학교 총장서리를 역임했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많음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해석하고 지향하는 마르크시즘의 내용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설명했다.

3. Robert C. Tucker,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2nd edition, 1971)/김학준·한명화(韓明華) 공역, 『칼 마르크스의 철학과 신화』(한길사, 1982).

저자(1918~2010)는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사·석사학위를 받고 주소미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봉직하다가 귀국해 하버드대학교에서 러시아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로 종신했다. 스탈린에 대한 전기로 명성을 확립했다.

이 책은 “마르크스의 철학은 ‘청년 마르크스’의 철학과 ‘노년 마르크스’ 또는 ‘성숙한 마르크스’의 철학으로 나뉘볼 수 있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해석을 배격하고, 양자는 ‘휴머니즘’이라는 일관된 철학을 지녔으며 따라서 둘로 나뉘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4. Agnes Heller, *The Theory of Need in Marx*(London: Allison et Busby, 1976)/강정인, 『마르크스에 있어서 필요의 이론』(인간사랑, 1990).

저자(1929~2019)는 헝가리 출신의 미국 철학자로 마르크스에 관한 여러 저술을 출판했다.

5. Jon Elster, *Making Sense of Marx*(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1994)/진석용 옮김, 『마르크스 이해하기』(나남, 2015).

노르웨이 국적의 존 엘스터는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마르크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오슬로국립대학교 교수로 봉직했다. 그는 시카고대학교 웨보르스키(Adam Przewonski) 교수 등과 함께 ‘분석적 마르크스주의(analytical Marxism)’를 대표하는 마르크스연구자로, 이 책은 그들의 ‘분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베버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독일이 낳은 세계적 사회과학자로,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성공적으로 도전했다. 그의 대표적 저서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이 꼽힌다.

Sung Ho Kim, *Max Weber's Politics of Civil Societ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저자 김성호(金聖昊)는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하고 막스 베버를 주제로 삼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윌리엄스칼리지 조교수를 거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베버에 관한 국내 정치학자의 최초이면서 유일한 저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George Bernard Shaw, Sydney James Webb, Sydney H. Olivier, Graham Wallas, Hurbert Bland, William Clarke, and Annie Besant, *Fabian Essays in Socialism*(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889; 1948 Jubilee Edition)/고세훈(高世薰) 옮김, 『페이비언 사회주의』(아카넷, 2006).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페이비언협회 회원들은 1889년에 초판을 출판했다. 이 초판은 여러 차례 판을 거듭하다가 60년이 지난 1948년에 초판 편집자였던 쇼의 긴 후기를 담은 제15판, 이른바 Jubilee Edition이 출판됐다. 역자는 최종판의 제15판을 완역했다. 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논의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페이비언사회주의다. 우리나라 정치·경제계와 학계에 여전히 유효한 이 주제에 관해 국내에서 처음 출판된 책이다. 역자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로 봉직했다.

VIII. 서양(5): 현대

현대(1): 개관

1. 강정인·김세걸 공편역,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문학과지성사,

1994).

주제와 관련해 12명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의 논문을 편역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포함됐다.

i. George Sabine, "The Two Democratic Traditions," *The Philosophical Review*, 61(October 1952), pp.451~474.

ii. Stephen G. Salkever, "Freedom Participation, and Happiness," *Political Theory*, Vol. 5, No. 3(August 1977), pp.391~413.

iii. Michael Levin, "Marxism and Democratic Theory," in Graeme Duncan, ed., *Democratic Theory and Practic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79~83.

iv. C. B. Macpherson, "The Prospects of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in ____,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Justic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35~43.

v. Robert A. Dahl,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pp.111~135.

2. 유흥립, 『현대정치사상연구』(인간사랑, 2003); Stephen Eric Bronner, *Ideas in Action: Political Tradition in the Twentieth Century*(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1999)/유흥립 역, 『현대 정치와 사상』(인간사랑, 2005).

저자는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하는 가운데 정치에 있어서의 윤리담론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해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첫 번째 책은 니체, 스트라우스, 하버마스, 데리다, 로티 등의 정치사상 그리고 공동체주의, 인권, 법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등을 다뤘다. 두 번째 책에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럿거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봉직한 저자(1949~현재)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과시즘, 공산주의 등을 분석했다.

3.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2001)/(October 25, 2001)/장동진(張東震) 책임번역,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공리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주의, 시민덕성이론, 다문화주의, 페미니즘』(동명사, 2018).

역자는 오스틴 텍사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정치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4. 김비환·유홍립·서병훈·이동수 편, 『현대정치의 위기와 비전: 니체에서 현재까지』(아카넷, 2020).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 스트라우스(Leo Strauss, 1899~1973),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 오크숏(Michael Joseph Oakeshott, 1901~1990),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 벌린(Isaiah Berlin, 1909~1997), 롤스(John Rawls, 1921~2002), 노직(Robert Nozick, 1938~2002), 매킨타이어(Alasdair Chalmers MacIntyre, 1929~현재), 테일러(Charles Margrave Taylor, 1931~현재), 페이트만(Carole Pateman, 1940~현재), 영(Iris Marion Young, 1949~2006), 이리가레(Luce Irigaray, 1930~현재),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현재),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 데리다(Jacques Derrida, 1932~2004), 로티(Richard McKay Rorty, 1931~2007) 등 모두 20명을 다뤘다.

현대(2):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관

장동진,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동명사, 2001); _____, 『심미 민주주의: 공적 이성과 공동선』(박영사, 2012).

하이에크(1899~1992)

Friedrich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1973)/민경국, 서병훈, 박종운 공역, 『법, 입법 그리고 자유』(자유기업원, 2018).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로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사회주의를 ‘노예로 가는 길’로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1974년에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뮐르달(Karl Gunnar Myrdal, 1898~1987)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벌린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An Inaugural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University of Oxford on 31 October 1958*(Oxford: Clarendon Press, 1959)/박동천 옮김,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아카넷, 2006).

울프(1933~현재)

Robert Paul Wolff, *The Poverty of Liberalism*(Boston: Beacon Press, 1970)/양승태 역, 『자유주의의 빈곤』(종로서적, 1983).

저자(1933~현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고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한 뒤 매사추세츠대학교(애머스트 캠퍼스)에서 정년퇴임했다. 밀의 『자유론』으로부터 출발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을 비판하고 ‘과격한 참여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아블라스터

Anthony Arblaster,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New York: Blackwell, 1986)/조기제(趙基濟),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나남, 2007).

역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진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봉직했다.

몽크

Yascha Mounk,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함규진(咸圭鎭) 옮김, 『위험한 민주주의: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와이즈베리, 2018).

저자(1982~현재)는 독일출생으로 케임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칼리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존스홉킨스대학교 고등국제학대학원 부교수다. 역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다. 대표적인 서평으로는 다음이 있다.

임장혁, 「서평: 야스차 몽크 저/함규진 역, 『위험한 민주주의』, 『형사정책 연구소식』147(2018년 가을), 44쪽.

권재현, 「서평: ‘조국 사태’와 포퓰리즘의 상관관계; 야스차 몽크 저, 『위험한 민주주의』의 렌즈로 읽다, 『주간동아』(2019년 10월 11일), 4~7쪽.

김비환

1.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기본권을 통해 본 시장과 민주주의』(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_____, 『오크숏의 철학

과 정치사상: 실용주의에 포획된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해방시키다』(한길사, 2014); _____,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현대 입헌민주주의의 스펙트럼』(박영사, 2016); _____,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어떤 자유,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첫 번째 책에서 저자는 자유주의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교분석했다. ‘균형적 자유주의,’ 예루살렘히브리대학교 교수인 조셉 라즈(Joseph Raz, 1939~현재)의 자유주의 등을 해설했다. 두 번째 책은 런던경제정치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오크숏(Michael Joseph Oakeshott, 1901~1990)의 정치이론을 해설했다. 세 번째 책은 입헌민주주의의 현황을 살폈다. 네 번째 책은 “자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했다. 세 책 모두 매우 전문적이다.

2. 김비환·김정오·박경신·염수균·장영민·함재학 공저, 『자유주의의 가치들: 드워킨과의 대화』(아카넷, 2011).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적 대학교에서 법철학을 강의하고 현재 뉴욕대학교 교수면서 동시에 런던대학교 교수인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1931~2013)과의 대화를 담았다.

현대(3): 폭력, 인권, 정의, 포퓰리즘, 보수주의

폭력(한나 아렌트)

1. 김비환,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20세기 한나 아렌트』(한길사, 2001).

한나 아렌트(1906~1975)는 히틀러의 유대인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귀화한 정치철학자로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1951)과 『폭력론(*On Violence*)』(1969) 등의 저서로 명성을 얻었다.

대표적인 서평으로는 다음이 있다.

서유경(徐裕卿), 「서평: 김비환 저,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서평문화』 41(2001년 3월), 104~111쪽; 김선옥(金善郁), 「서평: 김비환 저,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정치사상연구』 6(2002년 봄), 227~240쪽.

2. 홍원표(洪元杓) 편, 『한나 아렌트와 세계사랑』(인간사랑, 2009); _,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 행위, 전통, 인물』(인간사랑, 2013); Marco Goldoni and Christopher McCorkindale, eds., *Hannah Arendt and the Law*(New York: Hart Publishing, 2012)/홍원표 역, 『한나 아렌트, 정치와 법』(신서원, 2021).

인권

김비환·유홍림·김남국·박의경·곽준혁·김병곤 등 16명 공저,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담론의 쟁점과 전망』(이학사, 2010).

정의

Michael J. Sandel,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20)/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와이즈베리, 2020).

저자(1953~현재)는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즈장학생으로 뽑혀 옥스퍼드대학교 베일리얼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7세 때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논문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이후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제창했다.

포퓰리즘

포퓰리즘, 곧 주로 선동에 의한 대중영합주의의 기원은 고대희랍의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이후 남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서병훈,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책세상, 2008).

2. John B. Judis, *The Populist Explosion: How the Great Recession Transformed American and European Politics*(Columbia Global Reports, 2016)/오공훈 옮김/서병훈 해제, 『포퓰리즘의 세계화: 왜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에 대한 공격이 확산되고 있는가』(메디치미디어, 2017).

보수주의

강원택(康元澤),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동아시아연구원, 2008); _____,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 300년, 몰락과 재기의 역사』(21세기북스, 2020).

런던경제정치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자신이 관찰한 영국보수당을 중심으로 이 책을 썼다.

VII.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특히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됐다. 그 대표적 저서는 다음과 같다.

1. 강정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비판적 고찰』(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민주주의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7).

2. 임혁백(任赫伯), 『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나남, 1994); _____,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나남, 2001); _____, 『신유목적(新遊牧的) 민주주의: 세계화·IT혁명 시대의 세계와 한국』(나남, 2009)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3김 정치시대와 그 이후』(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Hyug Baek Im,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1960~Present*(London: Palgrave Macmillan, 2020).

저자는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 석학인 아담 웨보르스키 교수의 지도를 받아 「남한에서의 관료적 권위주의의 흥기(“The Rise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를 정치학 분야에서 세계적 학술논문지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World Politics*, Vol. 39, No. 2(1987), pp.231~257에 발표한 데 이어 “The Politics of Transition: Democratic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1989)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으로 봉직했다.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및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그리고 세계정치학회(IPSA)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사이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관해 결정적인 저술들을 발표했고, 『신유목적 민주주의』로 2010년도에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받았으며, 『비동시성(非同時性)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고려대학교출판부, 2014)으로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상을 받았다.

3. 최장집(崔章集),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1996)/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 역, 『한국현대정치의 조건』(도쿄: 호세이대학출판국, 199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후마니타스, 2002)/박상훈 개정,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후마니타스, 2010).

저자는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코포라티즘(조합주의)을 중심으로 비교정치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저술을 출판했다.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기에, 서평이 잇따랐다. 첫 번째 책의 서평으로는 다음이 있다.

- i. 임혁백, 「서평: 보편적 사회과학 언어로 분석한 한국 민주화; 최장집 저,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평문화』 24(1996년 겨울), 75~80쪽
- ii. 김동춘(金東椿), 「종합서평: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한국민주주의론; 최장집 저,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김만흠 저, 『한국정치의 재인식』, 『창작과 비평』 96(1997년 6월), 364~272쪽
- iii. 전상인(全相仁), 「서평: 최장집 저,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제4호(1996년 12월), 491~496쪽.

두 번째 책의 서평으로는 다음이 있다.

마인섭(馬仁燮), 「서평: 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나?; 최장집 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2002년 겨울), 395~415쪽; 강명세(姜明世), 「서평: 한국 민주주의의 빈곤; 최장집 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비평』 11(2003년 상반기), 356~375쪽; 손호철(孫浩哲), 「서평: 상식을 넘어서?; 최장집 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평문화』 60(2005년 겨울), 101~106쪽.

4. Robert A. Dahl, *On Democrac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김왕식(金旺植)·장동진(張東震)·정상화(鄭商和)·이기호(李起豪) 공역, 『민주주의』(동명사, 1999).

예일대학교 정치학과의 로버트 달(1915~2014) 교수는 평생을 민주주의 연구에 바쳐 이 주제에 관해 많은 저서를 출판했다.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이안 샤피로(Ian Shapiro) 교수의 서문이 추가된 제2판은 『민주주의(증보판)』(동명사, 2018)로 같은 공역자들에 의해 번역됐다.

5. 김비환,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교보문고, 2000).

6. 서병훈·김주성·임혁백·강정인·이화용·정호원·홍태영·오향미·김남국 분담집필, 『왜 대의민주주의인가』(이학사, 2011).

7. 임혁백,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아테네에서 21세기 한국까지, 민주주의의 연대기』(김영사, 2021).

이 책은 김영사의 「굿모닝굿나잇」 시리즈의 하나로 출판됐다. ‘민주주의 탄생부터 민주주의 4.0까지 단숨에 읽는 민주주의의 필수 개념과 승리의 역사’라는 또 하나의 부제가 말하듯, 민주주의의 기원과 성장과정을 설명한 데 이어 현대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극복방안을 해명했다. 그는 한국정치학계에서 민주주의 이론과 관련해 선임 최장집 교수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다.

보수주의

양승태·이완범·강정인·김비환·장인성 등 12명 공저, 『보수주의와 보수의 정

치철학』(이학사, 2013).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실체와 문제가 논의되면서 영국·미국·독일·중국·일본에서의 보수주의를 분석하고 그 맥락 속에서 한국의 보수주의를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철학자 아르놀트 겔렌(Arnold Gehlen, 1904~1976)의 보수주의가 논의됐다.

VIII. 맺음말

앞에서 살핀 저·역서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을 전공하는 정치학자의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그들은 이전 세대의 관행이었던 일본어로부터의 중역에서 벗어나 원전을 번역하거나 해설하면서,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 연구는 ‘추상적 관념유희’라는 사회 일각의 부당한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여건 아래, 그들은 1995년에 정치사상연구회를 발족시키고 그것을 한국정치사상학회로 발전시켰으며, 자신의 학술지로 『정치사상연구』를 출판하고 있다. 동양정치사상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별도로 2001년에 동양정치사상사학회를 발족시키고 자신의 학술지로 『동양정치사상사』를 출판했다. 이 학회는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로 확대됐다.

둘째, 지난날 대체로 철학자들이 주도했던 사상 및 철학 분야에서의 서구 원전들의 번역과 그리고 영향력이 컸던 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정치학자들도 철학자들에 못지 않게 활발하게 수행했다. 이로써 동서양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 분야의 연구에서 정치학자들의 기여가 컸고 이러한 기여는 한국의 정치학에서 정치철학 분야가 위축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내용이 훨씬 풍부해졌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동서양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의 기본적 주제들을 한국의 정치에 연결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지난날에는 국가·자유·평등·분배·정의 등을 개념 그 자체에 대해 연구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개념으로부터 한국의 정치를, 그리고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까지 연구의 영역을 넓힌 것이다.

넷째,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더 활발해졌으며, 자연히 민주주의에 관한 주제 또는 화두가 다양하고 풍부해졌다. 특히 민주화가 성취된 시대에 들어왔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에 주목해 그것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 것

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새삼 일깨워주었다.